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 “나주 밤하늘 별보며 꿈 키웠죠”

나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세계랭킹 2위, 배드민턴 여자 에이스 안세영이 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화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21·삼성생명) 선수가 고향사랑기부제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탁해왔다고 7일 밝혔다.

안세영 선수는 지난 1월 3주간 3차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말레이시아·인도·인도네시아)에 모두 결승전에 올라 우승 2회, 준우승 1회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첫 주 말레이시아 오픈에서 준우승으로 아쉬움을 삼켰던 안 선수는 심기일전 인도, 인도네시아 오픈에서 연달아 금메달과 우승 트로피를 쓸어 담으며 2주 연속 대회 정상에 등극하는 진기록을 수립했다. 안 선수는 3월 독일오픈과 전영오픈을, 이후 5월부터는 파리 올림픽 담금질에 들어간다. 9월에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예정돼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나주 이창동 출신 안세영 선수의 우승을 축하·응원하는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금의환향한 안 선수는 최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비대면 전달식을 통해 나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재미있고 행복한 배드민턴을 하겠다는 목표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는 안 선수의 원동력은 밤하늘의 별을 보는 일이다. 안 선수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나주에서 보냈다”며 “힘이 들 때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언젠가 나도 별처럼 빛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나주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활

이창동 출신 ‘배드민턴 신동’ 월드투어 3개대회 결승진출 2주 연속 우승 ‘진기록 수립’ “나주발전에 도움 주고싶어”



나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며 사인을 하고 있는 안세영.

동 중인 아버지 안정현씨는 “나주는 고향을 넘어 딸의 꿈을 키워준 곳이자 지금의 국가대표 안세영을 있게한 곳”이라며 “고향에 기부금을 기탁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어 참여하게 됐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3개 대회 결승진출, 2주 연속 우승 금자탑으로 대한민국과 고향 나주를 빛낸 안세영 선수에게 축하와 응원을 전한다”며 “고향을 잊지 않



국내 배드민턴 간판스타이자 나주출신인 안세영과 아버지 안정현(나주시체육회 사무국장)씨가 7일 나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나주시 제공

은 안 선수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부금을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기부자)이 주소지 이외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기부를 받은 지역에서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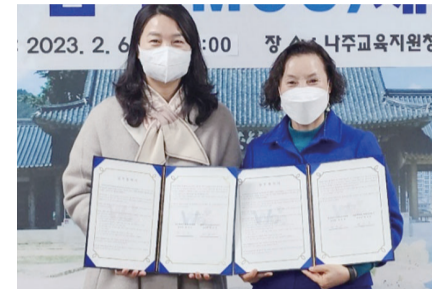
나주시는 나주배, 쌀, 잡곡세트, 멜론, 천연염색제품, 나주목사내아 숙박체험

권 등 나주를 대표하는 상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또한 기부자의 폭넓은 선택을 위해 나주사랑상품권과 나주시 지자체 쇼핑물 ‘나주몰’과 연계된 마일리지(포인트)를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나주시에 기부하려는 개인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을 이용하거나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

아동 청소년 심리상담 지원 협약 동진대상담센터-나주WEE센터



동진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지난 6일 나주교육지원청에서 나주wee센터와 ‘지역 위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동진대 학생상담센터는 나주wee센터로부터 의뢰받은 학생들에 대한 순회 상담과 집단 상담을 지원한다.

위기 아동과 청소년에게 컨설팅과 자문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 부스와 상담주간 운영 등 학교방문 행사와 홍보 활동에 힘을 모은다.

박은민 동진대 학생상담센터장은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

안전주거 철통 보안 장치 지원 나주시, 여성 1인가구 대상

나주시가 해마다 증가하는 여성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철통 보안 장치를 지원한다.

나주시는 스토킹, 주거 침입, 폭력·도난 등 여성취약 범죄 예방을 위한 ‘위기탈출 안심홈 세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관 CCTV(도어가드)’, ‘SOS비상벨’로 구성된 안심홈 세트 설치 및 임대비용을 1년 간 무상 지원한다. 주택 현관 앞 실시간 영상 확인, 배회자 감지 및 알람, 양방향 대화, 가족·지인과 위치 공유 등 기능을 갖췄으며 위급상황 시 비상벨을 누르면 24시간 보안업체 출동 서비스를 지원한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

주택 화재 피해주민 위로금 전달 나주시 왕곡면 주민자치위

나주시 왕곡면은 양산리 주택 화재 피해를 입은 한 가정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금한 위로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위로금을 전하고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임시주거 시설 임차비 등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는 가구당 1동(크기3×6기준)에 한정 ‘월 임차료의 80%이내’에서 ‘임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피해지원금은 70%이상이 소실된 ‘전소’ 주택의 경우 500만원, 반소(30~70%) 300만원, 부분소(30%미만) 200만원을 최대치 한정해 각각 지원한다.

임차료 신청 기한은 ‘임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피해지원금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이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

현안사업 222건 조기 착수...지역 건설경기 부양

자체 설계로 예산 3억 절감

나주시가 기술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자체 설계단 운영을 통해 올해 소규모 지역 현안사업 실시설계를 조기 완료하고 예산도 절감했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 3일까지 50여일 간 시 자체

설계단 구성·운영을 통해 110억원 규모 소규모 현안사업 222건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쳤다.

자체설계단은 토목, 농업기반, 도로관리 3개 반에 읍·면·동 기술직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3억원의 실시설계비용 예산을 절감했다.

사업 분야는 마을 안길·진입로 86건

(38억원), 도로정비 22건(28억원), 농로 포장·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 114건(44억원)이다.

설계단은 실시설계 첫 단계인 현장조사 때부터 시공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등 수요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호평을 받았다.

나주시는 주민 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

농번기 이전인 6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을 통한 마을 주민들의 정주 여건, 영농 편의 향상은 물론 예산 신속집행에 따른 건설 경기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

혁신도시 전력그룹사, 5년간 20조 재무 구조 개선 나섰다

그룹사 사장단회의 건전화계획 3.3조 목표 자산매각·비용절감 신시장 개척 등 수출기업 지원

한국전력 등 전력그룹사 11곳이 5년간 20조원의 강력한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 부문 혁신에 맞춰 고강도 재무 건전화 목표를 설정한 것.

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그룹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재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전을 비롯해 한수원, 한국남동·중부

·서부·동서·남부발전,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등 11개사가 참여했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2026년까지 20조원 규모의 재무 개선에 나선다. 올해에만 3조3000억원 이상 재무 구조를 손볼 계획이다.

자산 매각을 통해 2조9000억원, 사업 조정으로 5조6000억원, 비용 절감으로 3조원, 수익 확대로 1조1000억원, 자본 확충으로 7조4000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여기에 강도 높은 자구 노력 방안도 마련된다.

한전은 지난해 부동산에 대해 ‘제한 공모형 매각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해 4600억원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다. 또 석탄 발전상한제 완화 등 전력구입비를 줄이고, 업무추진비를 30%나 삭감하는 등 3조1000억원을 절감하기도 했다.

지난해 5조5000억원을 절감, 목표치인 3조3000억원을 167%나 넘어선 규모다.

에너지 신사업의 수출 산업화를 돕기 위한 전력그룹사와 민간 기업 해외 동반 진출 방안도 논의됐다.

원전과 관련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을 적기에 준공하고 이를 토대로 튀르키예·영국 등에도 원전을 수주하려 한다. 수소의 경우 글로벌 수소 신시장을 개척·선점하기 위해 ‘한전-전력그룹사-민간기업’ 전주기 협력체계를 만든다.

해상풍력은 국내 실증 적기 시행, 글로벌 선도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한 국내 기업 동반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의 탈탄소화 계획에 가스복합화력·수소 혼소발전 등 친환경 화력 발전이 포함되는 가운데 ‘무탄소·신 전원’ 사업을 중점 협력한다. 노병하·혁신도시=김용희 기자